

『안제본기(雁帝本紀)』의 일고찰*

- 가전문학으로서의 특성을 중심으로 -

최지녀**

- I. 서론
- II. 『안제본기』에 나타난 가전체의 문법
- III. 『안제본기』의 구연과 작품의 성격
- IV. 가전문학의 전통에서 본 『안제본기』
- V. 결론

<국문초록>

이안중(李安中, 1752~1794)의 『안제본기(雁帝本紀)』는 기러기를 황제로 의인화한 가전문학이다. 이 작품은 기러기와 관련된 다양한 한자 어휘와 고사들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항우본기』의 등장인물과 고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유만주(兪萬柱, 1755~1788)의 『흙영』에는 『안제본기』의 창작과 낭송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이 산견되는데, 이에 의하면 이안중은 1786년에 유만주의 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안제본기』를 낭송하였다. 『흙영』의 평가를 통해 볼 때 『안제본기』는 국문소설의 낭독 현장과 같은 분위기에서 낭독되었으며, 이는 이 작품이 주제를 강조하는 이념적 성격보다는 유희적 성격이 두드러짐을 보여준다. 가전문학의 전통에서 볼 때 『안제본기』는 조귀명의 『화왕본기』와 일정한 관련이 있으며, 작품의 분량 및 인물의 설정, 사건의 전개 등의 요소를 통해 볼 때 강한 서사 지향을 지닌다.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교양과 강의전담교수

핵심어 : 이안중(李安中), 『안제본기(雁帝本紀)』, 가전체, 가전문학, 『흙염』, 낭송

1. 서론

이안중(李安中, 1752~1794)의 『안제본기(雁帝本紀)』는 기러기를 황제로 의인화한 가전문학이다.¹⁾ 이 작품은 기러기 황제를 주인공으로 한 본기 형태의 가전문학으로서 개성적인 면모를 지닐 뿐만 아니라, 유만주의 『흙염』에 작품의 창작 및 감상과 관련된 몇몇 기록들이 남아있어 논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승호 교수는 이 작품에 대한 최초의 연구에서 『춘추』와 『사기』가 이 작품에 미친 영향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에 따르면 『안제본기』는 『춘추』의 유교사상과 음양사상을 수용한 작품으로, 『사기』의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서사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그는 후속 연구에서 조귀명의 『화왕본기』와 『안제본기』를 대비적으로 고찰하면서 특히 사상적 지향과 서사적 특질을 상세하게 밝혔다.²⁾

그런데 이렇게 진전된 논의의 과정에서 『안제본기』가 가지는 가전문학으로서의 기본적인 특징들은 충분히 언급되지 않은 듯하다. 가전문학은 ‘사물에 대한 관심’과 ‘사물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우의적 주제’가 공존하는 문학 형태인바, 선행연구에서 밝힌 기존의 가전문학과 대비되는 『안제본기』의 특성들은 역으로 『안제본기』의 가전문학으로서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그 의미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안제본기』가 지

1) 『안제본기』와 같이 제명(題名)에 ‘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고 내용이 통상적인 전의 속성을 벗어난 작품을 ‘가전(假傳)’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모호하게 남아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우선 본고에서는 조동일, 『가전체의 장르 규정』,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집문당, 1992, 131면의 “사물을 사람의 일생에 따라 의인화한 것은 가전이라 해야 마땅하나 왕조의 역사처럼 쓴 것도 있어 형식이 다양하므로 가전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견해를 빌어 ‘가전체’ 혹은 ‘가전문학’이라는 용어를 맥락에 따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참고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박혜민, 『가전체소설의 의미 재고』, 『인문과학』 제58집,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에서는 ‘본기체 가전’이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2) 김승호, 『雁帝本紀』의 연구 - 『春秋』와 『史記』의 영향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36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김승호, 『雁帝本紀』와 『花王本紀』의 비교, 『새국어교육』 제85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닌 가전문학으로서의 면모를 고찰하고, 유만주의 『흠영』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안중의 문학 활동을 서사적으로 정밀하게 재구(再構)한 연구³⁾에 기대어 작품의 창작과 감상의 맥락을 밝혀 『안제본기』의 개성과 의미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안제본기』에 나타난 가전체의 문법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제본기』의 대략의 줄거리를 인정기술(人定記述), 행적부, 논찬부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⁴⁾

[1] 인정기술

- 雁帝 洪信은 호가 백양伯陽이며 雁門 雲中 출신임
- 梁惠王의 총애를 받은 이, 梁鵠, 梁鴻, 陳勝, 商山四皓가 노래한 鴻鵠 등이 일족에 속함

[2] 행적부

- 洪信은 兵事를 좋아하고 이를 연마하여 鳥王에게 발탁되고 벼슬을 역임함
- 鳥王 사후 추대되어 왕위에 오르고 국호를 羽民, 연호를 鴻嘉, 수도를 雁塞로 정함
- 鴻嘉 원년 秋 8월에 큰 눈이 내려 새들이 얼어죽자 안제가 애통해하며 鳥官들과 대책을 강구함
- 羽士, 巢翁 등의 제안으로 강남으로 천도하기로 결정하고 남쪽으로 이동함
- 詔書를 내려 추위를 피해 천도하는 부득이함과 抑陰扶陽의 뜻을 밝힘
- 안제가 새들을 인솔하여 남쪽으로 가다가 뒀에서 士卒의 절반을 잃음
- 안제의 침입에 놀란 楚魂이 鵠帝에게 구원을 요청함
- 안제의 장수들이 부대의 정연함을 들어 승리를 자신하고 양군이 전투를 벌임

3) 김하라, 『俞晚柱가 만난 李安中-1786년 9월, 남산의 문학청년들』, 『한국한문학연구』 제69집, 한국한문학회, 2018.

4) 전체적인 줄거리와 단락은 김승호, 앞의 글, 2008, 301~303면에 자세하다. 『안제본기』의 이본은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한국은행본과 태동고전연구소본의 2종이 알려져 있다. 작품은 약 3,500자 정도의 분량으로, 이는 한국은행본에만 있는 『雁帝徙都江南詔』를 제외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참조하여 선본으로 여겨지는 한국은행본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 楚魂과 鵠帝가 달아나다 견제가 자결함
- 居巢翁의 조언에 따라 홍구를 경계로 楚와 雁의 영토를 분할함
- 屈原이 남해 廣利王을 설득하여 안제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 광리왕이 안제를 성토하고 공격하고자 하나 안제의 설득에 체념함
- 안제가 북경으로 천도하려던 중 화살에 맞아 落雁之峰에 떨어짐
- 위중해지자 翩翩公子를 불러 뒷일을 명함
- 시호를 隨陽이라 하고 落雁之峰에 장사 지냄

[3] 논찬부

1. 입전대상과 관련된 어휘 · 고사의 편철

전통적으로 가전체 작품은 대상의 고유한 속성에 관심을 기울인다. 기존에 인지하지 못했던 사물의 속성을 드러내거나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물의 속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다.⁵⁾ 이때의 새로운 방식이란 한 자어나 전고(典故)의 활용에 해당하는데, 물명(物名)이나 지명(地名) 및 전고의 능숙한 활용은 배경지식을 지니고 있는 독자에게 ‘중의성’과 ‘언어유희’에서 비롯하는 지적 쾌감과 재미를 선사하게 된다. 『안제본기』는 ‘기러기 황제’의 뛰어난 인품과 능력, 통치 행위를 드러낸 표면적 언술 아래에 기러기의 속성을 교묘한 표현을 통해 함께 드러내고 있다. 작품의 도입부가운데 일부를 예로 들어보자.

신(信)은 태어날 때부터 양덕(陽德)이 있었고, 『춘추』에 밝았다. 신의를 중시하여 신의가 없으면 서지 않았다. 병사(兵事)를 좋아하여 병아리 시절부터 갈대 가지를 물고와 늘어놓고 모래밭에 군막(軍幕)을 쳤으며, 진법을 배우고 때때로 익히기를 새의 새끼가 자주 나는 것과 같이 하여 ‘비장군’이라고 불렸다.⁶⁾

안제의 이름 ‘홍신(洪信)’인데, 이는 기러기가 전하는 소식이라는 의미의 ‘홍신(鴻信)’과도 소리가 통하며, 특히 기러기가 신의 있는 동물로 여겨진다

5) 가전문학이 ‘사물의 특성에 대한 기록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삶에 대한 환유적 기록’이기도하다는 점의 함의에 대해서는 류준경, 『花王傳』의 특성과 역사적 전개 양상, 『동방학문학』 제56집, 동방한문학회, 2013, 131~134면 참조.

6) 信生有陽德，明於『春秋』，重然信，無信不立。喜兵事，自黃時，含蘆枝列，幕於平沙，學陣而時習，如鳥數飛，號曰：‘飛將軍(1b)’. .kci.go.kr

는 점과 관련이 있다.⁷⁾ 기러기는 한번 짝을 지으면 이별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신(信)’이라는 덕목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안제가 신의가 있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기러기는 가을에는 남쪽으로, 봄에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속성을 지닌 때문에 ‘수양(陽鳥)’ 혹은 ‘수양지조(隨陽之鳥)’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안제가 양덕이 있었다는 말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기러기가 봄과 가을에 이동하는 것을 두고 『춘추』에 밝았다고 표현한 것은 이 작품에서 중의적 언어의 효과가 가장 윤택하게 드러나는 대목 가운데 하나이다.

수많은 ‘노안도(蘆雁圖)’와 ‘평사낙안도(平沙落雁圖)’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기러기는 갈대와 어우러진 모습 혹은 강가의 모래밭에 내려앉은 모습으로 빈번히 묘사된다. 안제가 어린 시절부터 병법에 밝아 갈대로 군막을 만들고 모래밭에서 진법을 익혔다는 말은 이와 같이 기러기의 생태를 반영한 것이다. ‘學陣而時習’은 한눈에 『논어』 ‘학이(學而)’의 ‘學而時習’을 변형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웃음을 머금게 하는데, 이안중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習, 鳥數飛也’라는 주자의 주(注)를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즉 이 대목에서는 경서의 주석을 활용하여 새의 속성 일반을 표현하고 있다. 나아가 ‘병사(兵事)’ ‘날[飛] 합하여 붙인 ‘비장군’이라는 별칭 역시 한나라의 명장 이광(李廣)의 별명에서 가져온 것으로 『사기』의 전고를 활용한 것이다.

이밖에도 안제 형제가 우애가 돈독하고 순서를 잃지 않았단가, (能篤於兄弟, 不失其序) 안제의 군대의 대오가 정연했다는 내용들은(我之陣肅肅有序, 彼之師差池其羽, 我整而彼亂, 亂何以敵) 기러기의 속성을 표현한 것이다. ‘안행(雁行)’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와 같이 기러기가 줄을 지어 나는 모습은 질서 혹은 형제간의 우애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안제본기』는 대상과 관련된 고사나 어휘를 망라하는 가전의 기본적인 장르관습에서 벗어나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관습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안제본기』에서 기러기와 관련된 해박한 지식이 화려한 문체로 표현되고 있다. 주인공 안제의 성명이 ‘홍신(洪信)’, 호가 ‘백양(伯陽)’, 출신지가 ‘안문운중(雁門雲中)’인 것과 국호가 ‘우민(羽民)’, 연호가 ‘홍가(鴻嘉)’, 수도가 ‘안

7) 이에 대해 김승호, 앞의 글, 2010, 627면에서는 “안제의 이름을 ‘信’으로 한 것은 『춘추』 대의를 전제한 첫 징표에 속한다.”고 하여 이념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강하게 부여하였다.

새(雁塞)인 것 등 안제를 둘러싼 제요소는 ‘새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 조왕(鳥王)의 눈에 들어 각종 벼슬을 역임한 일은 『춘추』의 새 이름을 빈 관직명을 가져와 표현했으며,⁸⁾ ‘홍은망극(鴻恩罔極)’, ‘편편공자(翩翩公子)’ 등과 같은 재치있는 표현들도 보인다.

『논어』, 『맹자』, 『주역』, 『시경』, 『사기』, 『춘추』, 『장자』 등에서 가져온 다양한 전고를 활용하고 있는 대목은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그 중 『맹자』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그 일족이 지극히 번성하여 여러 나라에 흠어졌는데, 진(秦)에도 있었고 양(梁)에도 있었다. 양(梁)에 있었던 자는 양혜왕의 충애를 입어 연못가에 머물며 때때로 돌아보고 말하기를 “현자라야 이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⁹⁾

② 우림(羽林)의 모든 병사들이 안제의 깃털이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 혼연히 기뻐하는 기색으로 “우리 왕께서 한질(寒疾)이 없으신가보다, 어찌 능히 날갯짓을 잘 하시는가”라고 말했다.¹⁰⁾

③ 2년 봄에 북경으로 도읍을 옮기려 할 때 혁추의 뜰을 지나다가 어떤 사람이 주살을 쏘았는데 안제가 흐르는 화살에 맞아 낙안지봉(落雁之峰)으로 떨어졌다.¹¹⁾

인용은 각각 『맹자』 양혜왕 상(上)과 하(下)의 내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①은 맹자가 기러기와 사슴이 노니는 양혜왕의 연못가에서 현자가 아니면 이러한 것을 즐길 수 없다고 한 대목을 활용한 것이며,¹²⁾ ②는 왕이 인정(仁政)을 베풀면 백성들이 왕의 즐거움을 함께 기뻐한다고 말한 대목을 활용한 것이다.¹³⁾ ③은 고자(告子) 가운데 바둑의 명인인 혁추에게 배우더라도 전심치지(專心致志)하지 않으면 성취가 없다는 맹자의 말을 활용한 것이다.¹⁴⁾ ①에서

8) 鳥王聞其賢以爲奮擊將軍，後以爭稻梁，左遷爲馮翼已，復爲尸鳩氏，歷爽鳩氏祝鳩氏，終爲睢鳩氏，掌兵事，兵事大治，行陣不亂，庸庸有序。(1b~2a)

9) 然其族極繁，散處諸國，或在梁，或在秦。在梁者，爲梁惠王所愛，處之沼上，時時顧謂曰：“賢者而後樂此。”(1b)

10) 羽林諸士見帝，羽毛之美，舉欣欣然，而有喜色，相告曰：“吾王庶幾無寒疾歟，何以能鼓翼也？”(5b)

11) 二年春，將徙都于北京，道過奕秋之庭，有一人關弓繳而射之，帝中流矢，至落雁之峰。(9a)

12) 孟子見梁惠王，王立於沼上，顧鴻鴈麋鹿曰：“賢者亦樂此乎？”孟子對曰：“賢者而後樂此，不賢者，雖有此，不樂也。”

13) 百姓聞王鍾鼓之聲管籥之音，舉欣欣然有喜色而相告曰：“吾王庶幾無疾病與！何以能鼓樂也？”

14) “今夫奕之爲數，小數也，不專心致志，則不得也。奕秋，通國之善奕者也，使奕秋誦二人奕，其一人專心致志，惟奕秋之爲聽，一人雖聽之，一心以爲有鴻鵠將至，思援弓繳而射之，雖與之俱學，

안제의 조상이 양혜왕의 총애를 입어 못가에 머물렀다고 한 것이나 ②에서 추위를 피하여 남쪽으로 날아가는 안제에게 병사들이 ‘한질(寒疾)’이 없어 날갯짓을 잘 한다’고 기뻐하는 대목의 표현은 재치가 넘친다. 봄을 맞아 다시 북쪽으로 가려던 안제가 혁추의 뜰에서 주살을 맞았다는 설정 또한 몹시 흥미롭다. 두 사람이 혁추에게 함께 배우더라도 한 사람이 주살로 기러기 잡을 생각이나 해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맹자의 말인데, 그 사람이 안제를 쏘아 맞혔다는 해학적인 설정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다. 『안제본기』의 최초의 청자(聽者) 가운데 한 사람인 김상임(金相任, 1753~1808)은 이 작품이 ‘부착흔(斧鑿痕)’이 없다고 하였다. 부착흔이 없다는 것은 전고의 활용이 자연스러움을 의미하는데, 실로 이안중은 작품의 곳곳에 빠짐없이 경전과 사서의 전고를 매끄럽게 배치해놓고 있다.

2. 『항우본기』의 활용

조선후기의 가전문학 가운데는 ‘전(傳)’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사서의 표제를 취해 ‘본기(本紀)’나 ‘사(史)’, ‘연의(衍義)’ 등의 이름이 붙은 일군의 작품들이 있다. 『안제본기』의 특성은 이러한 작품들과의 관련 하에서도 이해해 볼 수 있다. 1786년 9월 11일 유만주의 집에서 만난 유만주, 이안중, 김상임은 문학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펼친다. 이 자리에서 이안중은 『안제본기』의 찬을 낭송[口傳]하는데, 이에 대해 김상임은 다음과 같은 평을 남기고 있다.

“이 글은 아마도 사마천의 『항우본기(項羽本紀)』를 본뜬 것일 텐데, 경전과 사서와 제가의 책 가운데서 다양하게 가져와 작품을 이루었는데도 부착흔(斧鑿痕)이 그다지 드러나지 않았으니 한 시대의 이름난 작품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걸세.”¹⁵⁾

『안제본기』는 의인화의 기법을 본기체(本紀體)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문사들이 애호했던 『항우본기』의 영향이 미리 감지되거나 실제로

弗若之矣。”

15) 芻議, “此文概倣司馬遷『項羽本紀』, 而雜取經傳子史, 斷取尋摘, 打合成篇, 而不甚露斧鑿痕, 雖謂之名世之作, 非過語也.”(1786.9.11.)

『안제본기』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의 대부분은 『항우본기』에서 직간접적으로 언급되는 인물들이다. 진승(陳勝), 조고(趙高), 왕전(王翳), 범증(范增) 등이 그들이다. 그런데 『항우본기』에서의 이들의 비중은 상이하다. 범증은 항우의 책사(策士)로서, 조고는 항우와 적대적인 인물로 서사의 전면에 등장하지만 진승과 왕전은 범증의 말 가운데 그 이름이 등장할 뿐이다. 또한 『안제본기』에서의 이들의 역할은 해당 인물의 성격을 충분히 활용한 것이기 보다는 단편적이며, 역사적 사실과 잘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진승은 안제의 가계를 설명하면서 간단히 언급될 뿐이고, ‘지록위마(指鹿爲馬)’의 간신인 조고는 안제에게 중요한 조언을 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이는 『안제본기』가 전고의 맥락을 의미화하는 것보다는 소재에 맞는 전고를 열거하는 가전체의 장르 관습에 보다 충실한 결과로 보인다.¹⁶⁾

이안중은 젊은 시절 문장 수업을 하면서 사마천의 『사기』를 열정적으로 암송하였다.¹⁷⁾ 또 『안제본기』를 처음 칭취했던 유만주, 이안중, 김상임의 모임에서도 사마천의 문장을 최고로 평가하고, 『항우본기』를 ‘하나의 대문장’으로 칭송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던바, 이안중은 『항우본기』를 포함한 사마천의 문장들을 전범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안중은 자신이 애호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항우본기』의 내용을 작품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항우(項羽)의 이름에는 ‘羿’자가 들어있고, 가장 극적인 대목 중의 하나인 ‘홍문연(鴻門宴)’에는 ‘鴻’자가 들어있다. 이안중은 이를 바탕으로 『항우본기』에서 기러기나 조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인물이나 일화를 찾아 작품에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개한 네 인물 역시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 작품 초반 가계를 설명하면서 불우한 시절의 진승(陳勝)이 자신의 큰 뜻을 몰라주는 이에게 “제비나 참새가 어찌 기러기와 고니의 뜻을 알겠는가! (燕雀安知鴻鵠之志哉)”¹⁸⁾라고 했다는 일화를 활용하고 있다. 안제의 신하로

16) 김승호, 앞의 글, 2008, 315면에서는 안제의 선대를 추적하며 소개한 진승을 포함한 인물들의 일화가 유기적으로 응결되기보다는 파편화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굴원이나 조고의 작품 내적 기능이 생전에 구축해 놓은 상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흔들림 없이 구축된 역사적 상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17) 忽一朝心靈自悟, 奮發爲文章, 直取太史公書, 誦貫倍文, 窮日夜至. 其文氣奔放頓挫, 自不覺舞手動足以形象之, 往往爲呼號呌託聲.(金履陽, 『丹山李公墓誌銘』, 『風月集』)

18) 사마천, 『陳涉世家』, 『史記』 권48.

조고(趙高)와 왕전(王翦)을 등장시킨 것 또한 새의 속성과 관련있는 ‘高’나 ‘翦’ 등의 글자가 이름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범증(范增)을 등장시킨 것은 그의 호인 ‘거소옹(居巢翁)’의 ‘巢’ 때문이다. 인명(人名)뿐 아니라 『항우본기』에 등장하는 지명 또한 『안제본기』에 활용되고 있다.

낙안봉에서 유숙하려 할 때 안제가 봉우리의 이름을 묻고는 “낙안(落雁)이란 이름은 기러기에게 상서롭지 못하니 머물지 말고 가자”라고 하였다. 홍문(鴻門)과 홍구(鴻溝)와 안당을 지나 큰 바람을 이용하여 구만리를 날아가서 밤을 틈타 팽타의 아압지(鵝鴨池)에 도달하였다.¹⁹⁾

인용한 내용은 안제가 강남으로 천도하기로 결정하고 남행하는 행로를 서술한 대목이다. 작품 전체가 그러하지만 특히 이 대목은 기러기와 관련된 지명을 망라하며 유희적 필치가 강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지명은 실재하는 것으로, ‘낙안봉(落雁峯)’은 화산(華山)의 주봉(主峰) 가운데 하나이며, ‘안탕(雁湯)’ 또한 절강성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홍문’과 ‘홍구’는 『항우본기』에 등장하는 장소 내지 지명으로, 홍문은 널리 알려진대로 범증이 유방을 해칠 기회를 노리던 항우와 유방의 연회 장소이다. 그리고 홍구는 항우가 유방과 천하를 나누기로 약속하고 경계로 삼은 지역이다. 홍구는 후에 안제가 초혼에게 땅을 분할하는 경계가 되기도 하는데, 이 대목 역시 『항우본기』를 응용한 것이다.²⁰⁾

III. 『안제본기』의 구연과 작품의 성격

이안중은 선대에 고관을 많이 배출하였던 명문가 출신이나 점점 가세가 기울면서 그 자신은 여러 번 과거에 낙방한 불우낙척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1774년 23세의 이안중은 자신의 시문을 보이기 위해 유만주의 부친 유한준(俞漢雋, 1732~1811)을 찾아갔고, 이후 유한주 부자와 지속적으로 교유하게

19) 將宿落雁峰，帝問峰名曰：“落雁者，不祥於雁，不宿而去。”歷鴻門、鴻溝、雁宕，用大風疾馳九萬里，用夜半到彭打鵝鴨池。(5b~6a.)

20) 帝乃後其言，舍之中分其地割，鴻溝以東者爲楚，以西者爲雁。(8a.)

된다. 유한준 부자는 이안중의 문재(文才)를 높이 샀으며, 유한준은 이안중의 집에 기문(記文)을 쓰기도 하였다. 『수양가기(隨陽家記)』라는 글이 바로 그것인데, 이 글에 의하면 이안중은 단양 호숫가의 수양포(垂楊浦, 지금의 단양군 애곡리 일대의 수양개)를 좋아하여 집을 짓고, 비슷한 소리를 이용하여 거기에 ‘수양가(隨陽家)’라는 이름을 붙였다.²¹⁾ 『안제본기』에서 서사 전개에 핵심 사건은 강남으로의 천도(遷都)인데, 이는 ‘수양(隨陽)’과 의미가 통한다. 수양은 기러기의 별칭이기도 한바, 기러기가 따뜻한 곳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안제가 갑자기 닥친 추위를 피해 도읍을 옮기면서 “해가 남쪽에 이르면 짐 또한 남쪽의 남경으로 가고, 해가 북쪽에 이르면 짐 또한 북쪽의 북경으로 갈 것이다. 왕 된 자는 음을 누르고 양을 부지하는 것이 도리이다.”²²⁾라고 한 말이 이에 해당한다.

유한준이 『수양가기』를 쓴 것이 1780년이고, 유만주의 집에서 『안제본기』의 낭송이 이루어진 것은 1786년이다. 이안중이 1774년부터 1786년까지 유한준 부자와 교유한 사실이 『흙영』에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²³⁾ 『안제본기』는 ‘수양가’라는 이름의 집을 지은 후에 쓴 작품이다. 그렇다면 이안중이 ‘안제’라는 주인공을 설정하고 ‘수양’이라는 말을 활용하여 서사를 전개해 나간 데는 자신의 당호를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좀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이 작품에는 이안중의 자아가 어렵듯이 투사되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안제라는 주인공에게 투사된 이안중의 자아가 어떤 모습인지는 뚜렷하지 않다. 다만 기러기가 ‘양’을 쫓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지 않기에, 양을 쫓는 기러기와 같이 자신도 세상에 쓰이고 싶다는 마음, 기러기

21) 余同志中, 有李君丕子者, 上游之高士也. 丕子年十二三, 則爲古文, 聞於鄉邦. 僻處丹陽, 守其黑, 養志潛默, 博瞻文詞, 性好爲詩, 其音如古磬之自響, 而色爛然若朝霞初散也. 丹陽之陽, 有曰垂楊浦, 丕子樂之爲屋焉. 浦方音个, 屈原云悲江个之遺風, 个猶干也, 个與家音相似, 而垂隨楊陽又嫌音也. 故因以名之曰隨陽家, 甚哉丕子之好異也! 夫隨陽之鴻雁, 向陽之花木, 此二陽者丕子之所取以爲名者也. 然言固各有當耳, 何必二陽哉? 丕子十三而聞似秦舞陽, 守其黑似李伯陽, 潛其志博乎詞似魏伯陽, 其詩如古磬自響, 而色爛然若朝霞之初散, 似孟襄陽. 夫陰陽之陽, 陽尊之, 陽一陽也而二用之. 今丕子以二陽名, 而余以四陽記, 庸何傷於釋陽乎? 雖然匪四陽, 亡以發二陽之趣. 故二與四恒相隨, 此又隨陽之意也歟! 丕子名安中, 完山人.(유한준, 『隨陽家記 庚子(1780)』, 『自著』 권18.)

22) 日南至, 朕亦南至于南京, 日北京, 朕亦北至于北京, 以爲王者, 抑陰扶陽之道焉.(4b.)

23) 『흙영』에 나타난 이안중에 대한 기록은 김하라, 앞의 글 참조.

황제와 같이 출세하여 포부를 펼치고 싶다는 마음이 은연중에 표현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는 매개물을 통한 자아의 적극적인 표현과는 거리가 있으며, 일종의 역할놀이와 같이 안제가 마치 자신인 양 유희적으로 서사를 펼쳐나갔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사상이나 정서의 투영이기 보다는 희작적 표지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유한준은 ‘수양가’라는 이안중의 당호를 두고 ‘기이한 것을 좋아함이 심하다’라고 말했는데, 이는 이안중이 『안제본기』에서 선보인 바와 같은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에 상당한 취미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말이기도 하다.

『안제본기』의 내용 또한 적어도 최초의 구연(口演)의 현장에서는 다분히 유희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 『흠영』의 기록에 의하면 이안중은 『안제본기』를 두 차례에 걸쳐 낭송한다. 첫 번째 낭송은 1786년 9월 11일에 있었는데, 이때 이안중은 『안제본기』의 찬(贊)을 구송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⁴⁾ 유만주는 이안중의 『안제본기』 낭송을 듣고 “그런 글을 짓는 것은 어떻게 따라가 보겠으나 음석(音釋)을 아울러 물결치듯 낭송하는 것은 아득하여 끝내 따라잡지 못할 것 같다”²⁵⁾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안제본기』를 낭송하던 상황이 마치 공연을 보는 것과 같이 극적이고 격정적이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김려 또한 이안중이 시를 낭송할 때 음운의 변화가 천대만상이어서 듣는 사람의 뇌를 빼놓을 정도였다고 하였는데,²⁶⁾ 이 또한 유만주의 말과 상통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낭송은 9월 19일에 첫 번째 청자인 유만주와 김상임을 포함하여 유만주의 부친인 유한준, 종질(從姪)인 유준주(俞駿柱, 1746~1793), 내종형(內從兄) 김이홍(金履弘, 1746~1792) 등이 함께 한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안중이 다시 『안제본기』를 낭송했는데, 음석(音釋)이 물결치듯 했다. 짐짓 이담(俚談) 『임경업전』으로써, 무가(巫歌)에서 혼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써, 기두(機頭) 『삼국지(三國誌)』로써 익살을 떠는데, 도처에서 기이함에 힘쓰는 것이었다.²⁷⁾

24) 安平口傳『雁帝本紀』贊，偕向岡路，歷賞檜亭之楓，臨小澗壑，頗有蕭疏掩映之趣。(1786.9.11.) 이하 『흠영』의 인용은 인용문이 기록된 날짜를 괄호 속에 표기하기로 한다.

25) 至乃誦傳其近製『雁帝本紀』云云見別部，其製尙可及也，其兼音釋而瀾翻誦，去茫乎竟不可及也，尙可以該洽名與?(1786.9.11.)

26) 方其讀時，低仰頓挫，纓襟散，音韻變化，千態萬象，使旁觀者，不覺絕倒。(김려, 『題丹丘子樂府卷後』, 『瀟庭遺藁』 권10.)

‘음석(音釋)’이란 한자의 음을 읽고 이를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안중은 『안제본기』를 한자의 독음으로 읽은 후 다시 우리말로 풀어서 들려준 듯하다. 앞에서 언급한 ‘음석을 아울러[兼音釋]’라는 표현에서 이를 추정할 수 있는데, 대개 일정한 단위로 작품을 끊어 한자의 음독과 언해를 병행한 것인가 아닌가 짐작된다. 이러한 방식의 낭송을 통해 지식인 청자들은 전고를 활용한 본래 한문 문장의 함축미와 그것을 번역한 우리말 표현에서 오는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²⁷⁾

유만주는 이안중의 낭송을 국문소설 『임경업전』이나 『삼국지』의 낭송에 비기고 있는데, 이는 『안제본기』를 낭송하는 태도의 극적 효과가 대단하였음을 의미하는바, 특히 주인공 안제의 영웅적 활약을 굴곡있게 표현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작품 가운데 군담(軍談)에 해당하는 안제와 초혼(楚魂)·견제(鵠帝)의 전투를 서술하는 대목에서 ‘혼을 빼놓는’ 솜씨가 발휘되었을 것이다. 익살스러운 어조[談調]를 사용했다거나, 기이하였다[奇]는 표현은 이 작품의 주된 정조가 비장하거나 엄숙하기보다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쪽에 가까운 것이 아니었을까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특성은 논찬부에서도 드러난다.

태사공(太史公)은 말한다. 내가 일찍이 안제를 보니 멀리서 보면 인군(人君)과 같지 않으나 가까이서 보면 다른 점이 없었다. 조왕(鳥王)의 성덕으로 나라를 오히려 조관(鳥官)의 충성스러움으로 추대되었다. 음이 성하고 양이 미약한 날에는 음을 억제하고 양을 부지하였고 양을 좇아 도읍을 옮겼으니 현능(賢能)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와 같이 할 수 있었겠는가? 안제가 한미하던 시절에 대부의 일을 맡아서 하다가 나중에 그 아우와 함께 야인(野人)의 집에서 살았는데, 형제의 우의가 돈독하고 순서를 잃지 않았다. 그 아우는 울지 않아 주인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안제는 울어서 목숨을 보전하였다. 후에 항우와 홍산관에서 우두머리 자리를 다투는데 항우가 노하여 활을 쏘았지만 맞지 않았으니 왕이 될 자는 죽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리된 것이 아니겠는가! 견제와 초혼은 하루 아침의 원한을 참지 못해 날아올랐으니 참으로 천명을 알지 못했다 하겠다.²⁸⁾

27) 安平復誦『雁』製，音釋瀾翻句。故以俚談『慶業傳』，以巫家聽魂，以機頭『三國誌』，談調之行，到處已務奇矣。(1786.9.19.)

28) 가전문학을 포함한 한문학 작품이 낭독을 통해 공유되었던 구체적인 방식과 그 문학사적·문화적 함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세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전의 논찬부는 경계와 교훈이 담긴 말로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전체의 특성상 이른바 ‘행적부’에는 우의적인 요소가 많으며 상대적으로 ‘논찬부’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직설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가령 행적부의 내용이 흥미본위로 서술되거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할지라도 논찬부에서는 기존의 관념이나 윤리를 묵수하는 쪽을 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향과는 달리 『안제본기』의 논찬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특별한 교훈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안제가 인군(人君)과 다를 바가 없었으며, 양(陽)을 따랐다는 점, 곧 음양의 이치를 따랐다는 점을 예찬하고 있는 내용도 임금을 감계(鑑誡)하려는 의도와 직결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이안중은 논찬부에서도 고사를 동원하여 유희적인 필치를 보여주고 있다. 안제의 아우는 울지 않아 죽음을 당했고 안제는 울어서 목숨을 건졌다는 것은 『장자』 『산목(山木)』의 한 대목을 활용한 것으로, 장자의 친구가 장자를 대접하기 위해 기러기를 잡는데 둘 가운데 울지 않는 기러기를 택했다는 데서 가져온 것이다.³⁰⁾ 이 내용은 행적부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으며, 재주가 없는 사람이 먼저 버려진다는 고사 본래의 의미와도 동떨어져 있다. 곧 이안중은 논찬부에 이르기까지 가전문학 고유의 회작적 필치를 유지하며 안제의 삶을 다양하게 묘사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안제본기』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유희적 요소가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IV. 가전문학의 전통에서 본 『안제본기』

가전문학의 전통에서 볼 때 『안제본기』는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 하나는 동물, 특히 새를 입전한 가전이고 다른 하나는 본기의

29) 太史公曰：“予嘗見雁帝，望之，不似人君，就之，不見所以異焉。然鳥王之聖而傳國，鳥官之表而翼戴，當陰盛陽微之日，能抑陰而扶陽，隨陽而都，不賢而能若是乎？始帝微時，爲大夫所執，已復與其弟養於野人之家，能篤於兄弟，不失其序。其弟以不能鳴，爲主人所殺，帝以能鳴獲前，後復與項羽爭伯於鴻山關，項羽怒而射之，竟不中，王者不死，不其然歟！鵠帝楚魂不忍一朝之冤，欲與之頡之頡之，眞所謂不知命者矣。”(10a.)

30) 夫子出於山，舍于故人家，故人喜，命豎子殺雁而烹之。豎子請曰：“其一能鳴，其一不能鳴，請奚殺？”主人曰：“殺不能鳴者。”

형식을 취한 가전이다. 새를 입전한 가전으로는 피꼬리를 의인화한 작품으로 『金衣公子傳』이 산견될 뿐이다. 김삼락(金三樂, 1610~1666), 김서경(金瑞慶, 1648~1681), 황현(黃玿, 1855~1910) 등이 같은 제목의 작품을 남겼다. 다소 성격을 달리하는 작품으로는 송사형 소설의 성격을 띤 작자미상의 작품 『앵구 목송와갈선생전(鶯鳩鶯訟臥渴先生傳)』도 있다. 조류를 입전한 예는 대체로 회귀하고, 기러기를 입전한 작품은 아예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안제’의 용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위백규(魏伯珪, 1727~1798)는 동물의 무리에게 우두머리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우두머리가 있어야 함을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기러기 황제’를 거론하고 있으며,³¹⁾ 조재삼(趙在삼, 1808~1866)의 『송남잡지(松南雜識)』에도 안왕(雁王)을 언급한 대목이 있다.³²⁾ 넓게 본다면 이서구의 『녹앵무경(綠鸚鵡經)』, 유득공의 『발합경(鵝鵠經)』 등을 통해 볼 수 있는 조선후기 지식인의 조류에 대한 관심이 『안제본기』의 이면에서도 일정하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안중은 작품의 입전대상으로 왜 기러기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일까? 우선 빈번히 입전 대상이 되었던 소재에는 표현의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꽃을 소재로 한 화왕전 계열의 작품에서는 더 이상 참신하고 기발한 전고를 동원하기가 어렵다. 이에 반해 기러기라는 소재는 전고를 활용한 문학적 기교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미답(未踏)의 영역이다. 그리고 기러기는 이안중의 당호인 ‘수양과 기표가 일치하는바, 이안중은 기러기 황제의 서사를 통해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전문학에는 작가와 입전 대상인 사물과의 거리가 일정하게 존재하며, 대상과 관련된 어휘 및 고사의 동원이라는 작법(作法)으로 인해 작가 개인이 작품 속에 투영되는 일이 드물다. 관념적인 주제의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가능하나 개인의 정서나 취향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것이다.³³⁾ 다만 『안제본기』는 ‘수양’이라는 이안중의 당호와 주인공 ‘수양

31) 物之群居者，無將則亂。故蜂蟻有王，雁有鴈帝，馬有群頭，魚有隊長，況人衆乎？(『存齋集』 권 12 雜著.)

32) 조재삼, 강민구 역, 『교감국역 송남잡지』 12, 소명출판, 2008, 301면.

33) 이이순이 『화왕전』에서 출사하지 국화를 충분한 이유 없이 예찬하고 있는 것은 출사길이 막혔던 영남 문인의 자의식이 투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참조된다. 류준경, 앞의 논문, 157면 참조.

의 기표가 일치함으로 인하여 가전문학에서의 작가와 입전 대상의 거리가 한층 좁혀진 결과를 낳았다.

상기한 두 번째 맥락과 관련하여 조선후기에는 ‘전(傳)’이라는 표제에서 벗어나 본기의 형식을 취한 가전체가 등장한다. 『천군기』, 『천군연의』, 『심사』, 『천군실록』, 『화사』, 『화왕본기』, 『사대기』, 『사대춘추』 등이 그러한 작품들인데, ‘화왕전’ 계열의 작품인 『화사』와 『화왕본기』를 제외하면 이들은 대체로 마음이나 계절 등의 추상적인 제재를 입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곧 동물을 왕으로 삼았으며, 본기라는 제명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안제본기』는 ‘화왕전’ 계열의 작품들과의 상대적으로 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흙영』에는 조귀명의 『화왕본기』와 『안제본기』를 비교하는 언급이 있어 『안제본기』의 창작동기를 제공한 작품이 『화왕본기』가 아닌가도 추측하게 된다. 그런데 『흙영』의 기록에 의하면 이안중은 첫 번째 낭송이 있었던 날로부터 7일 뒤인 9월 19일에 다시 유만주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직접 『화왕본기』를 읽고는 자신의 작품이 더 낫다는 말을 하고 있다.³⁴⁾ 여기서 이안중이 『안제본기』를 짓기 전에 『화왕본기』를 읽어보았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안중이 조귀명의 『화왕본기』의 존재는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9월 19일에 처음 읽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시원(李始源, 1753~1809)이 『화왕본기』를 유만주의 작품으로 오해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³⁵⁾ 이안중이 조귀명의 『화왕본기』를 충분히 의식하고 『안제본기』를 썼는가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유만주가 작품의 글자 수까지 세어가며 두 작품을 비교해서 읽고,³⁶⁾ 이안중 역시 결과적으로 두 작품의 우열을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의 문학사적 관련을 논할 개연성은 있다.

『안제본기』는 기본적인 서사 구조와 인물 설정 방식 등에 있어서 화왕전 계열 작품과 차이를 보인다. 화왕전 계열의 작품들은 대체로 화왕을 보좌하는 다양한 꽃들이 있고 이 꽃들이 각자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충신 또는 간신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이 계열의 작품들은 세대의 교체에 관심을 가져서 세대에 걸친 화왕의 계보를 소개하기도 하고,³⁷⁾ 화왕을 제외한 다른

34) 安平讀趙錫汝『花王本紀』, 稱不如我之『雁』也。(1786.9.19.)

35) 見荷檻于上軒. 別稱文會, 此名亦不欲受也. 『花王本紀』我未嘗作, 乃孰傳之? (….) 因安平『雁』製而楔出『花王本紀』, 固『花王本紀』趙錫汝之文, 而楔出我製也. 不的洵如是矣。(1786.9.20)

36) 閱趙錫汝『花王本紀』, 計一千六百七十五字。(1786.9.13.)

꽃들의 가계를 기술하기도 한다.³⁸⁾ 『안제본기』는 이와 달리 다양한 새들이 신하로 등장하여 안제를 보좌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지 않다. 안제의 신하는 왕전, 조고, 범증 등과 같이 이름에 새의 표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고, 참새와 백치(白雉) 등이 잠깐 등장하기는 하나 ‘화왕전’에서 꽃의 개성을 다루는 방식으로 새의 특성을 부각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안제본기』는 서사의 초점이 확연히 안제에게 맞추어져 있으며, 안제가 추진하는 천도와 그로 인한 전투가 서술의 주요 내용을 차지한다.

『화왕본기』 또한 기존의 화왕전 계열의 작품과는 성격을 달리 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화왕본기』는 서사를 포기하고 대화를 중심으로 극적 장면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왕의 행동이나 그와 관련된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 구현에 필수적인 몇 장면을 포착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³⁹⁾ 이러한 특징은 『안제본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안제의 활약을 서술하는 대목은 대화나 묘사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 경향이 강해진다.⁴⁰⁾ 물론 명백히 ‘화왕전’의 전통 위에서 서 있는 『화왕본기』와 『안제본기』는 형식과 주제의식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인다. 특히 『안제본기』는 『화왕본기』의 두 배 이상으로 확장된 분량의 서사 속에서 안제에 집중된 서사를 보이며 ‘강남천도’라는 핵심 서사로 인해 공간의 이동이 부각된다.

『안제본기』는 기러기라는 소재를 선택함으로써 이전의 가전이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표현과 기법을 소개할 수 있었으며, 본기체를 취해 분량을 확대함으로써 서사문학으로서의 지평을 확대하고 있다. 등장인물이 새를 제외한 다양한 실제 인물로 구성되어있든지, 기계적인 연대기적 서술을 탈피하여 공간의 이동과 사건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든지 하는 점은 이 작품의 강한 서사 지향성을 보여준다. 요컨대 가전문학으로서 『안제본기』는 『화왕본기』의 연속선상에 있으면서, 안제라는 인물을 단독으로 부각하고 서사를

37) 『안제본기』 또한 조왕에서 편편공자(翩翩公子)로 이어지는 왕조의 계보가 미약하게나마 드러나므로 혹 ‘鳥王本紀’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음직도 하지만 이안중은 제명 또한 ‘안제’를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선택하였다. 이런 점은 『안제본기』의 안제가 이안중의 자아가 투영된 인물에게 발생한 효과가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다.

38) 이이순의 『화왕전』이 그러한 예 가운데 하나이다.

39) 이홍식, 『東谿 趙龜命 花王本紀 研究』, 『한국언어문화』 제26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7면.

40) 김승호, 앞의 글, 2010, 632면.

확장하는 개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이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소설적 경향성과 연결된다.⁴¹⁾

V. 결론

『안제본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작품의 이념적 지향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보완하여 가전문학의 문법 내지 작법이라는 관점에서 작품을 조망하고 이안중이 작품을 창작하고 동료문인과 향유한 정황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안중의 희작적 필치가 단지 기러기의 생태를 드러내고 기러기와 관련된 고사의 나열에 그치고 있다고 보아서는 곤란하다. 유희적 언어들이 서사의 표면에서는 음양사상과 유교사상, 혹은 춘추대의와 같은 이념적 주제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예컨대 철새인 기러기가 추위를 피하여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안제가 황제로 설정된 서사적 문맥에서는 음양의 이치를 따라 천도하는 것으로 표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가전문학에서 주제와 작법(作法)이 서로 겹과 속을 이루는 실상을 적실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고는 이 가운데 가전의 작법이라는 측면에서 『안제본기』의 의미를 밝혀보고, 창작과 감상의 맥락을 짚어보았다. 이안중이 『안제본기』를 통해 자아를 간접적으로 은유하는 한편 낭송의 방식으로 작품을 동인(同人)들과 향유했다는 점은 가전문학의 역사에서 후대적 변모에 해당한다. 이는 조선 후기 문학사에 나타나는 소품문(小品文)의 유행, 한글 소설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구연(口演) 문화의 발생, 한문문학과 국문문학의 언어·문화적 교섭 및 그로 인한 한문문학의 변화 등과 연관을 맺고 있을 것이다. 『안제본기』의 창작과 감상이 가지는 문학사적 맥락에 대한 고찰은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41) 이와 관련해서는 김승호, 『李安中의 散文에 나타난 小說化 傾向』, 『어문연구』 제38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참조.

참고문헌

1. 자료

- 김려, 『濶庭遺藁』.
金履陽, 『風月集』.
유한준, 『自著』.
이안중, 『雁帝本紀』(규장각소장 한국은행본 『櫟錄』 소재).
조재삼, 강민구 역, 『교감국역 송남잡지』 12, 소명출판, 2008.

2. 단행본

- 조동일, 『한국문학의 갈래 이론』, 집문당, 1992.

3. 논문

- 김승호, 「『雁帝本紀』의 연구 - 『春秋』와 『史記』의 영향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36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8, 297~322면.
———, 「李安中의 散文에 나타난 小說化 傾向」, 『어문연구』 제38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175~200면.
———, 「雁帝本紀와 花王本紀의 비교」, 『새국어교육』 제85집,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619~643면.
김하라, 「兪晩柱가 만난 李安中 - 1786년 9월, 남산의 문학청년들」, 『한국한문학회연구』 제69집, 한국한문학회, 2018, 73~113면.
류준경, 「『花王傳』의 특성과 역사적 전개 양상」, 『동방학문학』 제56집, 동방한문학회, 2013, 129~162면.
박혜민, 「가전체소설의 의미 재고」, 『인문과학』 제58집,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5, 47~77면.
이홍식, 「東谿 趙龜命 花王本紀 研究」, 『한국언어문화』 제26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68~82면.

A Study on *Anjebongi*
-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Gajeonche -

Choi, Ji-nyeo

Lee An-jung's Gajeonche literature *Anjebongi* is a work of personification of a goose as emperor. There are two main characteristics of this work. The first is that this work adopts various Chinese vocabulary and references related to geese abundantly. The second is that this work especially utilizes the characters and the story of *Hanguwo-Bongi*. We can find Detailed contents related to the creation and the recitation of *Anjebongi* in *Heumyeong* of Yu Man-ju. According to the records of this book, Lee An-jung recited *Anjebongi* two times at the house of Yu Man-ju in 1786 and the mood was similar to that of read-aloud of the novels in Korean. This means that the amusing personality is more prominent than the ideological personality that emphasizes the theme. In the tradition of Gajeonche literature *Anjebongi* has some relation with *Huauung-Bongi* of Jo Gu-myeong and has a narrative through the factors such as the quantity of works, the setting of characters, and the development of events.

keywords: Lee An-jung(李安中), *Anjebongi*(『雁帝本紀』), Gajeonche(假傳體),
Gajeon(假傳文學), *Heumyeong*(『欽英』), recite

접수일자: 2018. 9. 30.
심사기간: 2018. 10. 1. ~ 2018. 11. 10.
게재결정: 2018. 11. 10.